

## 존 번연의 천국 여정

# 구원에 이르는 네 단계

## The four steps for salvation



영국의 작가 존 번연은 「천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이 소설은 한 그리스도인의 영원을 향한 갈망과 믿음의 여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순례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도 살아가는 동안 문득문득 죽음과 내세,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네가지 단계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 단계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함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단계는 구원의 여정에서 생각하면 구원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교나 신, 혹은 죄나 죽음 등에 대하여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인가 그것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50% 정도의 사람입니다. 아니면 80% 정도의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100%의 사람,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으로 보여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도 또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광, 즉 은혜, 축복, 만족, 평안, 참된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과 같은 것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로인해 사람들은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보면 마음속에서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부터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죄의 의미나 개념은 밖으로 드러난 범죄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주 강할 것입니다. 경찰이나 재판에 넘겨지는 것과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밖으로 드러나야만 비로서 죄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죄(SIN)의 의미나 개념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죄는 물론 마음 속의 보이지 않는 죄악도 동일한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밖으로 나타난 죄는 내면의 죄악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양쪽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원인이 존재하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즉 마음속의 죄와 악,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들도 모두 죄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면의 죄가 어느 정도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마음속의 죄악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이나 폭행을 해야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사람을 증오하는 것부터 이미 죄는 시작된 것입니다. 물건을 훔쳐야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의 잘못된 욕구나 나쁜 생각들도 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23 절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시기, 미움, 탐욕, 음욕, 속임수, 거만, 비난, 저주와 같은 수많은 죄악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죄의 온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와 악에 오염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몸의 때와도 비슷합니다. 문제는 몸의 때는 씻으면 다시 깨끗해지지만 마음의 영적인 때, 즉 죄는

인간 스스로 완전하게 씻어 없앨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 죄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자 고통스러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죄가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하나의 얼굴은 비극, 파괴, 멸망과 같은 잔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멀리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 예를 들면 전쟁, 살인, 싸움, 미움등의 근원에는 반드시 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또 하나의 얼굴은 대부분의 죄가 즐겁고 달콤하며 로맨틱하게 여겨지거나 삶의 편리한 수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죄는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두번째 단계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음을 인식함

**히브리서 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두 번째 단계는 구원의 여정에서 보면 구원의 출발점에 서 있던 사람이 이제 구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

한 것과 비슷합니다. 죽음과 사후의 심판 등에 대하여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죽음 후의 심판과 형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위의 성경 구절에는 인간에게 정해져 있는 2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 것이며 그것은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죽음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심판을 거쳐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잔인한 대가가 따라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죄는 자연히 없어지거나 잊어버리게 되면 해결되거나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이런 생각은 나 중심의 편의주의적인 생각이자 불잡고 싶은 기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죄의 이중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죄는 잔인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죄는 타인에게 잔인한 고통을 안겨 주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죄는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잔인한 모습으로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죄는 나중에 반드시 심판과 형벌, 멸망, 지옥과 같은 가혹한 대가를 동반한 채 자신에게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죄는 철저하게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

니다. 죄는 사냥개와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냥개는 목표물인 짐승을 발견하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추격하여 붙잡고 그것을 죽임으로 끝이 납니다. 죄는 이처럼 무섭고도 잔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하여 좀더 진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쉽게 범하고 즐기면서 그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범죄 심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 죄의 대가는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가끔 잡히지 않는 완전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빠져 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14절에서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는 좁은 길, 즉 생명의 행렬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넓은 길, 죽음의 길을 기분좋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도 참생명도 없이 영원한 멸망의 절벽을 향하여 걸어가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이 행렬에는 사탄 마귀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 행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천사로 가장하여 인간을 속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나라, 즉 지옥 까지 인간들을 무사히 데려 가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탄과 마귀가 가야 하는 최후의 심판 장소였지만 그들은 자신들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그곳으로 같이 데리고 가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요 작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경사가 없고 표면은 아주 부드러우며 굴곡이나 절벽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이 멸망의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행렬을 따라 가게되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멸망의 절벽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당신은 이 멸망과 지옥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에서 참생명과 구원, 천국의 행렬로 옮겨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없이 생명과 구원의 길로 옮겨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구원의 대열로 옮겨 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옥과 죽음의 형벌에 대하여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 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와 지옥으로 보내어진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부자는 말 할 수 없는 고통중에 한방울의 물을 애타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완벽하게 단절된 것으로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거나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희망도 도망갈 비상구도, 다시 시작할 기회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오직 있다면 희망 대신 절대 절망, 기회 대신 끝없는 후회, 기쁨 대신 견딜 수 없는 고통, 참자유 대신 영원한 구속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당신에게 들려 주는 지옥으로부터의 살아 있는 현장의 소리입니다.

### 세번째 단계

죄와 형벌로부터의 완전한 해결책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함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세 번째의 단계는 구원의 여정에서 생각한다면 약 80에서 90 퍼센트까지 구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으리 만큼 대단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인간은 죄를 따라 살아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축복이나 능력, 기쁨, 평안, 참생명이나 구원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죽음이나 사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 어떤 목마름을 느끼거나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갈망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선행, 기부, 종교 행위를 통해 구원을 기대하며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학자이며 크리스천이었던 파스칼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약하지만 위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인간의 힘으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조금전에 이야기한 선행, 기부, 종교 행위 등이 참구원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 스스로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만들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9절에서, 인간은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명확

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며 감사의 표시로서 평가하고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선행이 강조되는 분위기의 문화나 사회, 가정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힘든 곳일지 모릅니다. 거기는 구원이나 참행복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정되기 보다는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때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변화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행하지 못하여 죄를 범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또 다시 올바른 행위를 강요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행복나 구원,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가중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은 죄의 심판이나 형벌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 대신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주제 말씀인 베드로전서 3:18에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불의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나의 죄가 사함 받고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을 뿐 아니라 죽은지 3일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죽음

의 지배를 받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참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의미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은 모든 것을 무력하게 하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것은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을 다시 무력화 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죄로부터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구원에 거의 접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셔 들임으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 단계 예수님이 구세주로 내 마음에 영접함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길을 통하여 당신은 멸망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당신의 선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자 무료로 주어지는 은혜임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위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어린이가 심술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어린이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대단히 진지하게 물어 왔습니다. 선생님도 자신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만 했습니다. 생각끝에 선생님은 드디어 아이에게 대답 했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멸망의 행렬에서 참생명의 천국 행렬로 옮겨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대열로 옮기기 위하여는 당신의 죄와 형벌로부터의 완전하고도 유일한 해결책이 되신십자가의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마음 속에 모셔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 영원한 생명, 구원의 행렬로 옮겨 가시기를 권고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은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 가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분은 다음 기회에 하셔도 되니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만 진실된 마음과 경건한 자세로 다음 내용을 천천히 읽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구원 받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

예수님, 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저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자 합니다.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 주심으로 저의 모든 죄  
를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저의 죄와 형벌에 대한 완전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셔들이고자 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  
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분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  
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참생명과  
믿음이 더 자라고 풍성해지도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처에 교회가 있다면 예배에 참가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기나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더 새롭게 변화해 갈 것입니다. 믿음안에서 소  
망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구원에 이르는 네 단계

저 자 : 강 석재 JOY CHURCH 담임목사

주 소 : 일본 후쿠오카시 하카타쿠 히가시공원 4 – 5

전 화 : 81+092(643)5534

E-mail : joyskan@gmail.com